

중국의 신자유주의 논쟁과 그 함의: 푼응아이(潘毅, Pun Ngai)와 디로(盧荻, Dic Lo)의 논쟁을 중심으로

하남석(서울시립대)

1. 들어가며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체제 성격에 관한 논쟁은 중국 안팎에서 줄곧 이어져왔다. 그 핵심은 중국이 스스로의 체제를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혁개방으로의 노선 전환이후 시장경제를 수용하면서 변화해나가는 경제와 사회의 양상들 때문이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통치를 유지하는 가운데 시장을 도입하여 경제의 성격을 변화시켜나가는 정책적 전환으로 인해 일견 상호 모순되는 정치경제적 속성을 지닌 체제로 전환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과정을 살펴보자면, 중국은 1980년대의 과도기를 지나 1990년대 초중반에 이르러 보다 본격적으로 서구의 자본주의적 제도들을 도입하게 된다. 즉, 1989년 천안문 사건에 대한 폭력적인 진압 이후 기층 사회세력들의 힘은 축소되었고 중국의 지배 엘리트들 사이에서는 단호한 권위주의적 통치와 타협없는 시장화의 결합에 기초한 새로운 정치적 합의가 생겨났다. 이러한 합의는 1990년대 이후의 중국의 발전 경로를 규정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경향이 가장 강하게 드러난 것은 도시 지역에서의 국유기업 개혁이었다. 1997년 중국 공산당 15차 당대회에서 국유기업 개혁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이 방침은 큰 기업은 정부가 나서서 살리고 작은 기업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구조 조정하겠다는 ‘조대방소(抓大放小)’의 원칙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러한 국유기업의 개혁은 노동제도의 변화도 가져와서 기존의 종신고용의 단위(單位) 체제는 해체되고 기존 노동자들에 대한 대량의 정리해고가 이뤄졌으며, 새롭게 노동시장에 따른 고용계약이 이뤄지는 노동계약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렇듯 사회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생겨나서 여러 영역에서 기존 복지의 시장화, 상품화가 이뤄져 기층 인민의 삶의 안정성이 깨어져나가고 빈부격차가 크게 확대되자 이를 둘러싸고 지식인들 사이에서 크게 논쟁이 벌어졌다. 이 논쟁이 바로 잘 알려진 중국의 ‘신좌파 대 자유주의’ 논쟁이다.¹⁾ 이 논쟁에서 다뤄진 쟁점은 중국의 ‘근대성(modernity)’ 문제, 마오쩌둥 시기 및 문화대혁명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 지구화(globalization)에 대한 비판적 검토, 향후 중국 정치 제도의 변화 방향 등 굉장히 광범위했지만, 당시 중국 사회의 현실을 놓고 벌어진 논쟁에 국한하여 말한다면, 당시 중국의 개혁방향에 대하여 동조하는 측과 비판하는 측 사이에 벌어진 ‘신자유주의 논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²⁾

당시 신좌파들은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을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보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2000년

1) 중국의 신좌파 대 자유주의 논쟁에 대하여 그 쟁점과 의의를 소개하는 문헌은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公羊 主編, 『思潮: 中國“新左派”及期影響』(人民出版社, 2003); 이옥연, 『포스트 사회주의시대 중국 지성: ‘중국’ 재발견의 길』(서강대학교 출판부, 2017); 조경란,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글항아리, 2013); 마크 레너드 지음, 장영희 옮김,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돌베개, 2011) 등을 참고할 수 있다.

2) 백승욱, 「신자유주의와 중국 지식인: 자유주의의 쇄신인가 초국인가?」,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창비, 2008). 322쪽.

대 들어 후진타오가 집권하고 조화사회론의 기치 하에 도농격차 등의 국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일부 친인민적인 정책을 실시하자 중국 내에서 벌어졌던 신자유주의 논쟁은 가라앉았으며, 게다가 2007-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고 서구의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불신이 강해지는 반면, 국가 자본주의의 성격이 강했던 중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버티는 모습을 보여주자 상당수의 신좌파들은 중국의 성과를 강조하는 경향의 중국모델론으로 선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해지고 무엇보다 2015년 겨울 광둥지역의 노동운동을 지원하던 NGO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벌어지자 다시금 중국의 체제 성격에 관한 논쟁이 촉발되기 시작했다.³⁾ 무엇보다 후진타오 시기 적극적으로 억압하지 않았던 기층 노동NGO와 활동가들에 대한 탄압은 중국 정부가 외국인 투자 확대를 바라며 친기업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러한 중국 공산당 및 정부의 행위는 다시금 중국 체제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관한 논쟁으로 이어졌다.

2. 논쟁의 시작

1990년대 후반 중국의 신좌파 대 자유주의 논쟁이 일종의 좌파 지식인 대 우파 지식인의 논쟁의 구도였다면, 2016년 1월에 벌어진 중국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에 관한 논쟁은 좌파 및 진보 지식인 내부의 논쟁이라는 점이 그 특징이다. 2016년 1월에서 2월에 걸쳐 벌어진 이 논쟁은 당시 중국에서 새로 생겨난 진보 웹사이트였던 破土網에서 벌어졌다.⁴⁾

처음으로 포문을 연 사람은 현재 홍콩대학의 교수이자 대표적인 중국 노동연구자인 푼응아이(潘毅, Pun Ngai)였다. 푼응아이는 2016년 1월 14일 破土網에 “세계인민혁명론의 중심에서 자본의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⁵⁾ 그녀는 일단 세계적인 차원에서 신자유주의의 역사를 개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녀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자리 잡은 케인즈주의와 사회민주주의는 비록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와 생산의 사회화라는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국가의 경제 개입과 재분배 정책으로 대중의 사회복지수준을 높이고 계급모순을 억제해왔다. 하지만 재정부담의 증가로 인해 이 정책은 지속되기 어려웠으며, 노동자의 힘과 교섭 능력이 상승해 임금과 복지 증진으로 이어져 자본 이익이 줄어들자

3) 2015년 12월에 대대적으로 벌어진 중국 당국의 칹페이양(曾飛洋)을 비롯한 광둥지역 노동운동가들에 대한 구속과 탄압에 대한 정보는 FREE CHINESE LABOUR ACTIVISTS NOW (<http://freechineselabouractivists.tumblr.com/>) 등의 SNS 계정을 비롯해 SOLIDARITY WITH CHINESE WORKERS' STRUGGLE, “Workers in a Workers' State”, JACOBIN 2016. 1. 15. <https://www.jacobinmag.com/2016/01/china-strikes-unions-labor-protest-repression-communist-party>) 등을 참조

4) 破土網은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의 젊은 좌파 지식인 및 활동가들을 주축으로 2015년에 만들어진 웹사이트로 고통 받는 인민들의 목소리와 저항운동을 소개하고 주류 신자유주의담론에 대해 비판을 목적으로 했다. 중화권의 여러 진보지식인들의 논평을 비롯해 해외 좌파 지식인들의 글을 중국어로 번역해 소개했으며, 처음에는 간체자 사이트와 번체자 사이트를 동시에 운영했다. 하지만 2016년 여름에 당국의 검열로 대륙의 사이트가 폐쇄되었으며, 뒤이어 운영진들 내부 이견으로 인해 해산되었고, 현재는 여러 다른 웹사이트 및 온라인 매체로 분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밖의 서버를 이용하여 구축한 아카이브(<http://thegroundbreaking.com/>)에 기존에 실렸던 글들의 일부가 남아있다. 이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당시 논쟁과 관련한 글들이 전부 현재 아카이브에 남아있지는 않기에 다른 사이트에 옮겨져서 남아있는 글들을 검색하여 재인용했다.

5) 潘毅, “從世界人民革命的中心走向資本的中心” 破土網 2016年 1月 14日 (<https://www.inmediahk.net/node/1040260?fbclid=IwAR35wQFR9evyaU65c16GhnT1bUXHN6CTsrIpqj8QCGdG0n5EXAythlgb89k>)

자본과 노동 사이의 근본적 모순이 충돌하게 되었으며, 이에 자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반격이 나타나게 되었다. 푼응아이는 이를 신자유주의의 역사적 기원으로 본다. 신자유주의는 케인즈주의가 제창한 국가개입과 다양한 유형의 사회민주주의를 반대하며, 그 경제적인 입장은 경제 자유화, 사유화, 시장화 및 지구화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모순적인 것은, 신자유주의가 비록 국가의 개입에 반대한다고 하지만, 신자유주의 학설의 전파는 바로 강력한 국가의 개입이 있어야 실현된다는 점이다.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가 전면적으로 신자유주의로 돌아설 적에 중국도 중대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개혁개방”을 시작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으며, 적극적으로 지구적 자본에 대문을 활짝 열었다.

푼응아이가 보기에 1978년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결정을 내린 것은 청조 말기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다시 한번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학습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당시 사회엘리트들은 미국의 발전 모델을 세계에서 가장 성공적인 것으로 간주했다. 이들이 보기에 미국 모델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은 시장, 사유화, 자유경제였으며, 중국에 시장경제가 존재하지 않기에 서구의 선진국은 물론 막 산업화를 시작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 훨씬 뒤떨어졌다고 여겼다. 그래서 중국의 지난 30년간의 사회주의 모델은 의문시되었고, 사회주의의 핵심인 계획경제와 공유제는 격렬한 비판을 받았다.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에게 시장화는 중국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였다. 시장은 가격 메커니즘을 통해 경제를 충분히 스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합리적으로 자원을 분배하고 효율을 최대화하며,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여겨졌다. 시장에 대한 어떠한 개입도 시장 메커니즘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하고 부패를 야기하는 것이었다. 시장은 인간의 자유를 실현하며, 시장경제는 시장 안의 다양한 역할에 대한 선택의 자유를 제공하고, 사유제와 시장, 자유무역은 인간의 본성에 훨씬 더 적합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시장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칭송받았고, 시장에 대한 의심은 사상해방이 불충분하거나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지거나 심지어 “극좌파”라는 딱지가 붙었다.

푼응아이는 이후 30년 동안 중국 사회에 심대한 변화가 발생한 것을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서술한다. 그녀에 따르면, 각종 특혜 정책 속에서 대량의 외국 자본이 중국으로 몰려들었고 중국은 국제투자자들의 천국이 되었다. 1979년부터 2008년까지 중국은 8500억 달러의 해외 직접투자를 유치했고 현재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연간 800~900억 달러로 GDP의 21%에 해당하며 이는 개발도상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 소유권 구조에서도 중국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하여 정부는 비공유제와 사유경제의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으며, 후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놀랄 정도로 빠르게 증가해 60%에 달했다. 국유기업과 사영기업에서 실직한 대량의 일자리를 채워나간 것은 대부분 농민공으로 전체 일자리의 37.7%, 신규 일자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말부터 인민 생활의 질과 직결되는 주택, 의료, 교육 등 부문에서도 모두 시장화가 이뤄졌고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 WTO에 가입하면서 국내 시장화와 시장 개방 수준을 한층 높였다. 이렇게 중국은 마침내 지구적 자본주의 체계와의 연결을 완성시켰던 것이다.

푼응아이는 이렇듯 30년의 개혁 이후에 변화한 중국을 “이미 세계 인민 혁명의 중심에서 자본의 세계 공장이 되었다”고 단언한다. 중국 사회의 상품화 정도는 이미 놀라울 지경에 이르렀는데, 토지, 자연자원, 노동, 공공인프라 등 모든 부분에서 심각한 상품화가 이뤄졌다.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확연히 드러난 것은 모든 단계에서 국가라는 보이는 손의 개입이었다. 중국은 외국자본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경제특구와 기술개발구를 세우고, 양질의 기초설비를 비롯해 교육을 잘 받아 숙련된 대량의 노동력을 공급했다. 중국이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의 지도하에 세계의 공장이 되어 선택한 수출주도의 발전모델은

대량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며, 이에 수천만에 달하는 젊은 농민공을 도시로 보내 노동하게 했고 그들은 이 길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되었다. 중국에서는 이러한 비교우위에 기초한 발전전략으로 새로운 자산계급과 저렴한 임금의 신노동자 계급이 새롭게 형성되었다. 자산계급은 노동자의 피땀을 착취하는 공장에 의지하여 잔혹한 수단으로 자본의 원시적 축적을 진행하고 신속하게 권력을 탈취했다. 하지만 이러한 수출주도형 경제 모델의 대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노동자의 이익이 무시되었다는 점이다. 정부와 사영기업은 대량의 부를 축적했지만, 노동자는 가난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GDP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 60%에서 2009년 48%로 떨어졌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신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일부 계층이 먼저 부유해져야 궁극적으로 전 국민이 부유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경제적 차이가 계속 커져야 경쟁과 자극의 메커니즘이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이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얘기한다.

푼응아이는 이렇게 변화한 중국의 현실에 대해 “누가 이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 발전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고 현재 지구적인 신자유주의 체제의 일부가 된 중국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계급을 위해 싸울 것을 주문한다.

이 푼응아이의 글에 대해 역시 홍콩 출신으로 중국 인민대학 경제학과와 런던대 아시아아프리카대학(SOAS)에 겸직하고 있는 디로(盧荻, Dic Lo)는 破土網에 “중국과 신자유주의: 푼응아이의 글을 평한다”는 제목으로 짧은 반론을 제기했다.⁶⁾ 디로는 신자유주의가 1980년대에는 시장화, 1990년대에는 사유화, 2000년대에는 금융화를 위주로 한다는 세 가지 정책 신조의 진화를 거쳐 왔다고 판단한다. 그가 볼 때, 대체적으로 1990년대 중후반 이후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세계 자본주의의 주요 운영 논리는 금융패권이었는데, 이 가운데 중국 정치경제는 금융화의 압력을 받아왔고, 현재까지도 굴종의 요소도 있지만, 완강히 저항해오기도 했다.

즉, 디로는 푼응아이처럼 중국의 체제가 완전히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굴종과 저항의 요소가 병존한다고 판단한다. 그는 굴종과 저항의 병존이 나타내는 것은 중국이 전략적으로 세계자본주의 체계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모순이라고 본다. 그가 볼 때, 푼응아이는 글 속에서 굴종의 요소에 초점을 맞췄지만 중국 정치경제의 저항적 요소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는다. 그는 중국이 신자유주의 세계 체계에 굴종하지 않은 이유를 세 가지로 든다. 첫 번째, 중국 경제는 1980년대 이후로 채무의 함정에 빠진 적이 없다. 지난 30여년간 세계적 범위에서 악탈을 지속해왔던 이 함정은 시장화, 특히 대외무역 자유화가 야기한 고질병이었다. 두 번째, 중국 경제는 1990년대 사유화에는 상당 부분 굴종해왔지만, 금융화에는 줄곧 굴종해오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 중국 경제는 2000년대에 국유부문의 비중을 안정화시켰으며, 일정정도 노동자의 권익을 회복시켰고, 줄곧 금융화에 저항해왔다. 그래서 디로가 볼 때, 전체적으로 굴종과 저항의 대립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에, 중국 정치경제가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화되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디로는 푼응아이가 중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다원적인 구조를 간과했다고 비판한다. 푼응아이는 글 속에서 중국경제가 “노동집약적이고 수출지향적” 모델이며, 노동자에 대한 “과잉착취”에 의존하고 있다고 했지만, 30여년 간 사회소비규모의 지속적인 빠른 증가는 중국 경제의 주체적인 부문이 이 모델과는 대립하고 있음을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델과 관련하여 해외직접투자 부분에 대해 설명한 푼응아이 글의 데이터는 오류가 있다는 점을 지적

6) 盧荻, “中國與新自由主義: 簡評潘毅文章” 破土網 2016年 1月 14日
(<http://thegroundbreaking.com/archives/12648?fbclid=IwAR1HackJsZ7HMrBKmQuD1pKu-7BAGDbuyj-gW0k4qajkwHsX4yHwjNGON2o>)

한다. 디로의 계산으로는 21세기 들어 외자유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를 초과한 적이 없다.

결론적으로 디로는 “정치적인 의미에서 굴종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하며, 이를 통해 착취와 파괴 등이 모두 사실이라고 경고할 수 있다”고 보지만, “정치-도덕적인 입장만으로는 불충분하며, 현재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계에 진입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고 한다면, 힘을 다해 전략적이고 저항적인 진입을 쟁취하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즉, 디로는 노동계급의 이익은 중요하지만 그 이익만을 위해서 현재 중국 당국과 대립할 필요는 없으며, 도리어 중국의 국유경제의 힘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신자유주의와 저항할 수 있다고 본다.

3. 논쟁의 확산

이러한 디로의 반론에 푼응아이는 바로 재반론으로 응한다. 그녀는 1월 25일에 “‘세계 공장의 위기’와 신자유주의 재론: 디로선생과의 토론”이라는 제목으로 재반론의 글을 게재했다.⁷⁾

푼응아이는 다시 한 번 자신의 관점을 재확인하며, 지난 30여 년 간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신자유주의에 막대한 공헌을 했다는 모순을 지적한다. 그녀가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제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개혁개방 이후 국유와 집체경제가 전국 산업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줄어들어 2008년에는 30% 안팎에 그쳤고, 2012년에는 약 20%로 줄어들었다. 2014년 국유기업의 자산총계는 6조7천억 위안이었지만, 사영기업은 21조3천억 위안, 홍콩, 마카오, 대만 및 외자기업은 19조7천5백만 위안이었다. 고용인원수를 보더라도 2014년 국유기업은 6312만 명인데 반해, 사영기업은 9857만 명, 홍콩, 대만, 외자기업은 2955만 명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유기업은 사영 및 외자기업과 필적할 수 없다. 푼응아이는 이런 측면을 고려하면, 디로가 얘기한 국유기업이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났거나 노동자의 권익이 늘어났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비판한다. 오히려 중국 국가는 신자유주의적 해법을 통해 자본시장을 번영시켰고, 이익집단의 힘이 커졌으며, 중국 사회는 새롭게 시장화되었다는 것이다. 그녀가 보기에 이 과정에서 중국의 국가의 역할은 “인민을 위해 복무한다.”는 공복의 역할에서 “인민폐를 위해 복무한다”는 기업가의 역할로 전환되었다. 국가 스스로가 기업가의 역할을 수행했기에 모든 정책과 행위모델, 사회거버넌스는 시장화의 논리를 채택했고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이 아닌) 자본발전주의를 우위에 놓았다는 것이다. 푼응아이가 볼 때,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의 정수이다.

푼응아이가 볼 때, 신자유주의가 중국에 출현하여 세계의 공장을 건설한 것 자체가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그녀는 “국가가 선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지구적 자본이 빠르게 중국에 진출할 수 있었으며, 지방정부의 협조가 없었다면, 전국 각지의 농민들이 어떻게 연해 지역의 공장으로 몰려가 주요 노동력이 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거대한 폭스콘 제국은 바로 그 전형적인 사례가 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일각에서 중국 노동자들의 임금이 빠른 속도로 올랐으며 중국의 노동력 비교우위는 이미 상실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푼응아이는 반론을 제기한다. 그녀가 조사한 방직업 종의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의 시간당 수입은 17.71 달러에 달하는 반면, 중국은 2.65 달러이다. 이로 미루어 판단해보건대, 현재 중국 대부분의 업

7) 潘毅, “再论‘世界工厂危机’与新自由主义: 与卢荻先生商榷” 破土網 2016年 1月 25日 (<https://wallstreetcn.com/articles/237083?fbclid=IwAR0X9PixL-wczNihsQvRe8DPbJzEvBUy1uukf86rwP8K719BSwT98Gch080>)

중에서 이윤율이 떨어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본 간의 악성 경쟁 때문이지 노동자들의 임금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푼응아이가 볼 때, 이렇듯 일부 미디어가 중국의 인건비가 너무 비싸다고 하는 것이나, 일부 경제학자들이 중국이 국유 자본이 여전히 강하고 신자유주의의 발전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모두 노동자의 운명에 대해 무책임한 태도이다. 신자유주의 경제 형태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자본성격으로만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와 관련해 더 들여다봐야할 것은 지방 혹은 기업의 발전이 경제적 효율성과 기업가의 이윤을 올리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노동자의 일과 생활을 보장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가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푼응아이는 디로가 자꾸 위를 보고 그것을 경제와 현실로 파악하고 아래, 즉 노동계층을 보는 것을 정치와 도덕이라고 폄하하는 것에 강하게 반발한다.

한편, 푼응아이가 디로의 논쟁에 다른 연구자들도 개입하기 시작했다. 푼응아이가 디로에 대한 재반론을 게재한 다음날인 1월 26일 남경재경대에서 마르크스주의 경제사상사와 정치경제학을 가르치는 루잉시(盧映西)는 조금 시니컬한 태도로 “중국이 자본의 중심이 아니라고?—디로 교수의 글에 대한 재평론”이라는 제목으로 디로의 글에 반론을 제기했다.⁸⁾

루잉시는 중국이 세계 자본주의 체계에 전략적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굴종적인 요소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디로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녀가 보기에 중국의 개혁개방은 줄곧 “왼쪽 감뻑이를 키고 우회전”해온 것이다. 그녀는 디로가 중국이 ‘완강하게 저항해온 세 가지 사례를 든 것에 대하여 각각 반론을 제기한다. 첫 번째, 1980년대 이후로 중국은 채무의 함정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이 채무의 위기는 모든 시장경제 국가들이 반드시 맞닥뜨리게 되는 풀기 힘든 문제이며, 중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비록 아직 큰 일이 벌어지지 않는 않지만,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며, 이에 많은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경고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디로가 사유화와 금융화 모두 철저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에도 이론적 착오가 있다고 비판한다. 소유제의 구별만이 사회주의적 성격과 자본주의적 성격을 가르는 관건적 요소는 아니며, 중요한 것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한다는 자본주의의 게임의 규칙인데, 그런 측면에서 중국은 현재 철저한 사유화와 금융화의 종착지로 가고 있지,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세 번째, 중국이 2000년대 들어 국유부문의 비중을 안정시키고 노동자의 권익을 일정정도 회복시켰다는 디로의 판단은 너무 천진난만한 시각이라는 것이다. 그녀가 볼 때, 실제로 만약 한 국유기업이 몇 년 동안 흑자를 낼 수 없다면, 아무리 이윤 외에 자신의 기능을 강조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려 한다면, 바로 당국으로부터 “좀비기업”으로 간주될 것이 분명하다고 풍자한다. 결론적으로 루잉시는 현재 중국의 상황은 마르크스가 지정한 “원시적” 자본주의에 훨씬 가까우며, 디로가 푼응아이의 문제제기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벌거벗은 임금님’ 동화처럼 용감한 어린이가 사실을 얘기했는데, 여전히 한 어른이 정색을 하고 진실을 얘기한 아이를 훈계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같은 날, 미국 유타대학 경제학과의 교수이자 그간 네오마오이스트와 세계체제론의 입장에서 중국의 현실을 비판해온 리민치(李民騏)도 “신자유주의의 위기와 계급투쟁: 디로, 푼응아이, 루잉시에 대한 토론”이라는 글을 통해 논쟁에 가세했다.⁹⁾ 우선 리민치는 루잉

8) 盧映西, “中國不是資本中心?—對盧荻老師文章的再評論” 破土網 2016年 1月 26日 (https://wallstreetcn.com/articles/237087?fbclid=IwAR0AmaHvi_ag29CyG8kW2-eBOIF4nAQhKOIOcBSQijHIKwn-GEG_9z5kZqE)

9) 李民騏, “新自由主義的危機與階級鬥爭—與盧荻、潘毅、盧映西探討” 破土網 2016年 1月 26日 (<https://wallstreetcn.com/articles/237123?fbclid=IwAR3LHqhiOdCrTAPc-ePpHN5glWm-MCa9L>)

시의 조롱하는 방식의 태도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딕로가 중국의 진보적 경제학자로 오랫동안 신자유주의 개혁을 비판해온 이라고 높이 평가한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에 대한 입장에는 딕로보다는 푼응아이와 루잉시에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밝힌다. 특히 리민치는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딕로의 주장을 반박한다.

리민치가 볼 때,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소유제별 비중을 따져보면, 국유부문은 계속해서 축소된 반면, 사영부문의 비중은 크게 증가했다. 예를 들어 공업부문의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국유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의 50% 이상에서 2014년에 20% 대로 떨어진 데 반해 사영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3%에서 2015년 35%로 늘어났다. 이윤총액의 비중도 2015년 기준으로 국유부문은 17%로 떨어진 반면, 사영부문은 35%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외에도 순자산, 고정자산투자, 고용인원수 등의 소유제별 비중을 볼 때 모든 부문에서 사영부문이 이미 국유 부문에 비해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중국의 사유화 경향은 중앙의 정책으로 “혼합소유제”와 “공급 측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대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유화 정도뿐만 아니라 금융화 영역도 마찬가지다. 딕로가 중국은 금융화에 굴종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리민치가 판단할 때, 실제 금융업의 부가가치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2014년 기준으로 7.3%로 신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7%를 넘어설 정도로 금융화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지구적 차원에서 역사적으로 중국이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리민치의 입장은 딕로와는 다르다. 딕로는 데이비드 하비의 관점을 빌려와서 세계 자본주의 체계가 “강탈적 축적”을 통해 “체계 외부” 혹은 “주변부 경제체”로부터 생산적 자원을 착취하고 흡수해왔다고 본다. 이 “강탈적 축적”은 마르크스가 얘기한 “원시적 축적”과 비슷한 개념으로 폭력과 속임수를 사용해 잉여가치 생산 이외의 수단을 동원하여 자본과 부를 축적하는 것을 이른다. 예를 들어 라틴 아메리카의 구조조정, 소련과 동유럽의 쇼크요법, 동아시아 금융위기, 중국의 사유화 과정에서 국유자산의 거대한 유실 등은 모두 “강탈적 축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리민치가 볼 때, 신자유주의도 결국 자본주의이며, 자본주의의 가장 주요한 축적방식은 역시 자본축적이니 시초축적이나 강탈적 축적이 아니다. 신자유주의의 성패도 결국 근본적으로 세계적 범위의 계급 역량에서 자본계급에 유리한 결정적 변화가 발생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달려있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저임금 노동력과 기타 자본축적에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는 비교적 큰 지역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중심부 및 일부 반주변부 국가들은 이윤율이 대폭 하락한 일부 산업을 외부로 이전시키고 자신들은 새로운 고이윤의 산업분야, 예를 들어 고이윤이 발생하는 투기적 금융부문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마침 중국에서는 세계의 자본계급에 유리한 정치적 변화가 일어났고, 이를 “개혁개방”이라고 부르든, 딕로처럼 “전략적인 세계자본주의 체계로의 진입”이라 부르든, 객관적으로 세계자본주의 체계에 거대한 염가의 노동력을 제공했고, 자본축적에 필요한 조건에 유기적으로 결합해나갔다. 리민치가 볼 때, 만약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되지 않았다면, 1995년에서 2008년에 이르기까지 신자유주의 세계 경제는 상대적으로 변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리민치가 볼 때,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 경제는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있는데, 이에 신자유주의 경제의 기본모순에 대하여 새로운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2009년 이후로 미국 내부의 빈부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지만, 무역적자는 축소되었고, 민간부문의 채무수준도 떨어졌으며, 정부부채도 어느 정도 통제가능한 수준이기에 미국 경제는 세계자본주의경제의 불안정한 중심이 아니다. 오히려 그는 세계경제모순의 중심은 이미 중

국으로 넘어왔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 중국에서는 흥미롭게도 2010년 이후로 노동소득분배율이 상승국면인데, 평균임금증가속도가 노동생산성의 증가속도를 상회하게 되었다. 덕로는 이를 중국이 “신자유주의 작동논리를 따라서는 얻을 수 없는 경제와 사회발전”이라고 평가하지만, 리민치가 볼 때, 신자유주의는 여전히 자본주의이고,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르자면, 자본주의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노동계급의 확대와 조직역량의 강화를 가져오기에 이 현상은 중국의 노동계급이 힘이 커진 것으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노동소득분배율이 오른 것이 중국 노동자들이 더 이상 착취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폭스콘같이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공장은 덕로의 얘기처럼 중국의 부분적인 현상이 아니라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 연구자들의 반론에 직면하여, 덕로도 “‘중국과 세계자본주의’에 대한 진지한 토론: 푼응아이와 루잉시에 답하다”라는 글을 통해 상세한 재반론을 펼친다.¹⁰⁾

덕로는 푼응아이처럼 지난 30여년 간 중국의 경제 변혁과 세계 자본주의에 진입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신자유주의 논리에 굴복했다고 보는 점에는 분명히 반대한다. 푼응아이가 제기했듯이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며, 폭스콘모델과 같은 과잉착취공장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세계의 공장”은 중국의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라는 것이다. 즉, 덕로가 볼 때, 푼응아이는 부분을 전체로 간주하는 오류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덕로는 그 부분을 좀 더 부연 설명하는데, 그에 따르면, “세계의 공장”의 특성을 지닌 외국인투자기업의 생산성 상승 속도와 임금수준의 상승 속도는 그동안 줄곧 중국 전체 산업 부문의 평균에 뒤떨어졌다. 외자유입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고, 외국인투자기업이 공업부문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고 기준으로 따져 봐도 30%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덕로는 “세계의 공장”과 그 운영논리는 중국 경제의 일부분이지 전체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덕로는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의 경제성장은 전체적으로 노동자에 대한 과잉착취가 아닌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는 분명 ‘약탈적 축적’의 논리와 대립된다고 본다. 그가 볼 때, 중국의 생산성 향상의 주된 동력은 지속적이고 빠르게 늘어난 생산적 투자이며, 이 생산성 향상의 성과는 상당 부분 소비의 지속적이고 빠른 증가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저항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는 그 실례로 1993년~2007년 기간 동안 전체 공업기업의 연평균 명목 성장률은 17.54%였지만, 그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은 10.65%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전체 기업 노동자의 명목임금의 연평균 증가율을 15.36%였지만, 그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동일 지표는 11.93%였다는 데이터를 제시한다.

덕로는 또 자신의 주장에 대해 국유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여전히 중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국유기업은 자본집약적인 대공업 부문에 집중되어 있고, 비국유기업은 상대적으로 주로 노동집약적이고 규모가 비교적 작은 산업부문에 몰려있다고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는 2012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전국 최대 500대기업 중 중국기업이 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상위 38개의 기업이 전부 국유기업이라는 통계를 통해 여전히 국유기업이 중국 경제의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의 판단으로는 사유화가 신자유주의의 핵심 목표이자 시장화와 금융화의 기초인 만큼 국유기업의 보편적인 존재는 당연히 신자유주의에 대한 억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 푼응아이와 루잉시가 국유기업의 이윤지향을 자본주의

10) 盧荻, “誠懇討論「中國與世界資本主義」: 回應潘毅和盧映西” 破土網 2016年 2月 6日 (https://www.cooloud.org.tw/node/84593?fbclid=IwAR3zUMD82CB_fwpfB0hHCbMTEqGwarcUTBY2KKVF5f9yYnluqJmccMCj7DY)

화 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딕로는 한편에서는 동의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딕로가 볼 때, 국유기업의 이윤지향에는 그 한계가 있는데, 신자유주의의 원칙인 주주의익 극대화와는 거리가 있으며,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과 일련의 비시장적인 분담을 나누고 있고, 이윤지향을 넘어서는 인프라 투자, 연구개발투자, 대외전략투자 등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사회적 책임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국유기업이 경제의 주를 이루는 중국은 신자유주의의 작동논리와는 대립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한편, 딕로가 중국이 신자유주의 논리에 저항해왔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금융화에 대한 방어조치들이다. 그가 볼 때, 개발도상국들은 시장화와 무역자유화의 과정에서 수입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동시에 기술부족으로 인해 수출능력이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무역적자를 외채로 메우다가 채무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1990년대 초반 이후 생산성 향상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기간의 무역흑자를 달성해 이 채무의 함정에서 벗어났다. 딕로는 이 사례를 분명히 중국이 신자유주의에 저항해온 증거로 삼는다. 여기서 나아가 금융화 문제를 논하면서, 금융화는 “자본의 투기화 지향과 투기활동이 생산적 투자를 억압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중국은 국내 금융 측면에서 상업은행과 주식시장 사이에 격벽을 세워 은행자본이 금융투기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억제했으며, 대외 금융 측면에서 자본 이동을 관리해 내부 자본이 해외로의 유출과 해외투기자본의 진입을 막았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중국 경제의 생산적 투자가 지속적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한 것은 세계적 수준에서 특수한 사례이며, 이 역시 금융화에 대한 저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 최근 부동산과 주식 시장의 거품과 요동, 그림자 금융의 팽창으로 인해 생산적 투자의 증가가 급속히 하락하는 것은 금융화에 저항하는 제1 방어선이 무너진 것으로 볼 수 있고, 작년(2015년)부터 거액의 외환보유고가 유실된 것도 제2 방어선에 심각한 충격이 온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0여 년 간의 저항을 의미 없다고 간주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딕로는 자신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반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비판할 것은 응당 비판해야 하지만, 소중히 여겨야할 것은 소중히 여겨야 한다. 좌파 정치 실천의 출발점은 노동자를 주체로 하는 전체 인민의 복지여야 하며, 그 대립 면은 전체적인 세계 자본주의 체계이다. 그렇기에 전체적으로 ‘기존의 것은 지켜내고, 마땅히 쟁취할 것은 쟁취해야 한다.’ 그렇기에 중국의 전체 정치경제 구조를 원시적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세계 자본의 중심으로 보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다. 세계자본주의의 심대한 위기 속에서 금융패권은 호시탐탐 중국 인민이 쌓아놓은 거대한 부를 “강탈적 축적”의 목표로 삼고 있는 속에서 부분적인 자본에 대한 저항보다는 전체인민의 복지를 지켜낼 필요가 있다.”

4. 논쟁의 함의

중국 체제의 신자유주의 성격에 대해 2016년에 벌어진 논쟁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여러 익명의 네티즌과 활동가들 간의 온라인 논쟁으로 번져나갔다. 역시 이 논쟁의 주요 쟁점은 현재 중국의 체제 성격을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제에 맞서고 있으므로 진보적인 변화의 주축으로 간주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자유주의적 세계 체제에 완전히 동화되었기에 강한 투쟁과 저항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지의 여부이다.

이 점에서 이 토론은 기존의 신좌파 대 자유주의 논쟁과 비교해보면, 좀 더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좌파 대 우파의 구도를 넘어 좌파 내부에서 벌어진 논쟁이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기존에 중국의 신좌파라고 호명되던 중국 대륙의 지식인들은 이 논

쟁에 크게 참여하지 않았으며, 주된 논쟁 참여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중국 대륙 내부가 아니라 흔히 중화권(Sinosphere)이라 불릴 수 있는 홍콩을 포함한 해외의 중국 출신 연구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을 고려하자면, 이 논쟁이 벌어지기 이전의 중화권의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014년에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과 홍콩의 우산 시위의 영향을 무시하기 힘들다. 이 두 시위는 모두 복잡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참여자들의 면면도 극우 인종주의부터 극좌파들까지 존재하므로 하나의 경향으로 정리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공통점이라면 반중(反中)정서를 들 수 있다. 특히 이 대중운동에 참여했던 좌파 쪽의 반중정서는 이미 중국이 거대한 자본과 경제적 우위를 등에 업고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을 강제하고 있으며(해바라기운동), 이미 신제국주의의 경향을 지니고 정치경제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다(우산시위).

이런 측면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대륙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좌파 진영 일각(사미르 아민, 조반니 아리기, 마틴 자크 등)에서 등장한 중국론, 즉, 몰락하는 신자유주의 질서를 대체하는 진보적 대안으로서의 중국의 혼종적인 시장사회주의 체제(중국모델론)에 대한 옹호 혹은 제3세계를 대표하여 기존의 제국주의적 질서에 맞설 수 있는 보루로서의 중국의 역할 강조¹¹⁾에 대한 중화권 지식인들의 의견 분화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재 대륙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노동 시위와 비록 소수지만 이와 연대에 나선 중국 대학생들의 활동¹²⁾을 살펴보면, 이 논쟁이 한 번 지나가고 만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논쟁에서 많은 논자들이 주목했던 중국의 노동자와 젊은 세대가 기존의 문화대혁명을 거쳐 온 세대와는 달리 자본주의화 된 중국의 현실에 맞닥뜨려 중국의 사회주의적 성격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하며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마크 레너드 지음, 장영희 옮김, 『중국은 무엇을 생각하는가』 (돌베개, 2011)

11)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지역의 정치경제의 특성을 대안적 모델로 여기는 여러 주장들은 기존의 연구들에 비해 유럽중심적인 관점에 대한 교정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동아시아의 자본주의를 세계 자본주의 외부에 위치시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대안적 성격을 과대평가하는 오류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동아시아 자본주의를 대안으로 여기는 여러 논리에 대해 비판하면서 이 지역의 일반 노동자들의 사회 운동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장대업, “한국 혹은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몇 가지 외부적 시각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연구』 2018년 봄호 참조

12) 현재 여러 외신 및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8년 여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자스커지(佳士科技:Jasic) 노동자들의 시위에 중국 대학의 마르크스주의 연구 동아리들이 연대활동에 나섰다. 이 연대활동에 나선 대학 동아리의 활동이 당국에 의해 제약되고 일부 대학생들이 실종되는 중국에서 사회주의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고 노학연대에 참여하는 흐름에 당국의 탄압이 거세지고 있다. 자스커지 노동자 시위와 그를 둘러싼 중국의 노학연대 활동에 대해서는 Labor Notes, “The Jasic Workers' Struggle in China” November 05, 2018 (http://labornotes.org/jasic?fbclid=IwAR2eKQybqgFhlhfyw_sJlxAPcZin_5gsT9eg27JkmPhzlrCCHvc3psBxjCY) ; 박민희, “중국 대학생들은 왜 ‘전태일 평전’을 읽는가” 『한겨레』 2018년 11월 24일 ; 천슈웨이, “제이식 노동자들의 공회 건설 투쟁과 ‘좌익 학생운동’” 『오늘보다』 2018년 11월호 등을 참조.

박민희, “중국 대학생들은 왜 ‘전태일 평전’을 읽는가” 『한겨레』 2018년 11월 24일

백승욱, 「신자유주의와 중국 지식인: 자유주의의 쇄신인가 초극인가?」, 『세계화의 경계에 선 중국』 (창비, 2008)

이육연, 『포스트 사회주의시대 중국 지성: ‘중국’ 재발견의 길』 (서강대학교 출판부, 2017)

장대업, “한국 혹은 동아시아 자본주의에 대한 몇 가지 외부적 시각에 관하여”, 『마르크스주의연구』 2018년 봄호

조경란, 『현대 중국 지식인 지도』 (글항아리, 2013)

천슈웨이, “제이식 노동자들의 공회 건설 투쟁과 ‘좌익 학생운동’” 『오늘보다』 2018년 11월호

潘毅, “從世界人民革命的中心走向資本的中心” 破土網 2016年 1月 14日

-----, “再论‘世界工厂危机’与新自由主义: 与卢荻先生商榷” 破土網 2016年 1月 25日

公羊 主編, 『思潮: 中國“新左派”及期影響』 (人民出版社, 2003)

李民騏, “新自由主義的危機與階級鬥爭—與盧荻、潘毅、盧映西探討” 破土網 2016年 1月 26日

盧荻, “中國與新自由主義: 簡評潘毅文章” 破土網 2016年 1月 14日

-----, “誠懇討論「中國與世界資本主義」: 回應潘毅和盧映西” 破土網 2016年 2月 6日

盧映西, “中國不是資本中心? —對盧荻老師文章的再評論” 破土網 2016年 1月 26日

Labor Notes, “The Jasic Workers' Struggle in China” November 05, 2018

SOLIDARITY WITH CHINESE WORKERS' STRUGGLE, “Workers in a Workers' State”, *JACOBIN* 2016. 1. 15.